

2014년도 교황 방문 심포지엄: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가치

가. 개요

일 시	2014년 7월 2일(수), 오후 2:00~5:00	
장 소	당진문화원 1층 공연장	
참석자	좌 장	강현수(충남발전연구원장)
	발 표	김정환 신부(내포교회사연구소장) 조광(고려대 한국사학과 명예교수)
	토 론	김성태(합덕성당 신부) 오석민(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박물관 관장) 유병덕(충청남도 문화예술과 과장) 김영구(당진시 문화관광과 과장) 김정겸(서산시 문화관광과 과장) 박태구(중도일보 차장)

나. 내용

■ 강현수(좌장 · 충남발전연구원장)

- 다들 힘드시죠? 또 피곤하시고, (웃음) 또 조금 졸리실 텐데 밖에 커피나 음료수가 있으니 드시면서 좀 편안하게 같이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약 1시간 동안 두 분의 주제발표를 듣고 또 오늘 심포지엄의 제목인 교황님의 충남 방문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토론자로 모신 분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토론자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합덕성당 신부님으로 계시는 김성태 신부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그 다음 오른쪽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물관장님으로 계시는 오석민 관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제 왼쪽에 교황님 충남 방문과 관련해서 진두지휘하시는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유병덕 과장님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자, 왼쪽에 우리 당진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역시 교황님 당진 방문 관련 여러 가지 일들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영구 과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다 아시다시피 교황님이 당진과 서산을 방문하십니다. 제 왼쪽에 서산에서 교황님 방문의 진두지휘를 맡으신 서산시 문화관광과 김정겸 과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맨 마지막에 소개할 분은 언론인입니다. 충청지역의 정론지인 <중도일보> 차장님으로 계시는 박태구 차장

님 오셨습니다. (박수)

예, 오늘 두 분 아주 좋은 발표의 뒤를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1시간 정도이고, 또 끝날 때 여기 지금 앉아계신 분들의 질문과 의견들도 들어봐야 하고요. 또 발표하신 두 분의 마무리 발언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여섯 분 토론자분들은 약 7~8분 정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원래 이 심포지엄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교황 방문의 의미와 가치이기 때문에 토론 주제는 교황 방문의 의미와 가치에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 분들, 특히 충청남도 도청 과장님, 또 당진시와 서산시 과장님들은 아무래도 지역발전과의 관계라던가, 충청남도와 당진, 서산의 준비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순서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하구요, 토론자분들이 먼저 한 분씩 7~8분씩 쪽 말씀을 하신 뒤에, 방청석에서 열심히 경청해주시는 분들의 자유로운 말씀들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자이신 김정환 신부님과 조광 교수님의 부연설명과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성태 신부님이 화두를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성태(합덕성당 신부)

- 안녕하세요? 합덕성당 김성태 신부입니다. 제가 합덕성당에 간 지 한 5~6개월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었는데, 가자마자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에서 3월 달에 심포지엄을 했죠? 당진에서. 저는 장소만 제공을 한 겁니다. 합덕성당에. 왜냐 했더니, 갑오농민전쟁이 100주년이 되었잖아요? 그 갑오농민전쟁 100주년보다도 더 먼저 우리 합덕성당에서 봉기가 일어나서 어쩌면 농민전쟁보다도 더 아주 선구적인 역할을 민중들을 중심으로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게 합덕성당이였대요. 아주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동학과, 서학. 과거에는 서학이라고 했으니까. 서학으로 대변되는 천주교, 그것도 내포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 바로 그런 장소였다는 점이 의미 있고 재미있고, 그래서 장소를 제가 기꺼이 제공을 해서 심포지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광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과 연관되어서도 이미 우리 지역에 1895년 이전에 우리 민중들을 중심으로 한 주체적인 봉기가 있었고, 그것보다도 100년 전에 천주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중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과거가 또 있었고.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개별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내포 지역에 면면이 살아 숨 쉬고 있는 민중들의 아주 주체적인 의식이나 계몽적인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초창

기 천주교의 전파과정에서 있었던 민중들의 역할에 초점을 뒀서 많이 배웠고, 그 때문에 굉장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광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김정환 신부님의 발표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교황님의 방문에 충청도, 특히나 내포지역을 방문해주시는 데 대한 의미를 어떻게 뒤야 하는가가 오늘 초점이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무엇보다도 교황님이 방문할 때 뜻하지 않게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 신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전교구장 주교님의 편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 친서를 받은 교황님이 그것을 보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발표해주셨는데요, 비슷한 이야기를 교구장 주교님으로부터 지난 6월 16일 사제연수 때 들었습니다. 4월 24일에 류홍신 아자로 주교님이 교황청을 방문해서 교황님을 알현을 했다고 합니다. 약 40여분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주교님이 교황님께 그런 얘기를 했대요. “뜻하지 않게 교황님이 오시게 돼서 우리는 아주 기쁘고, 한편으로는 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시게 된 것을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교황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교님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고, 나는 그 편지를 받고 한국에 가야 한다는 아주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황님이 한국에 가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도록 한 그 근거, 바탕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다름 아니고 김정환 신부님도 말씀을 하셨고 조광 선생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내포 천주교의 그렇게 중요한 의미와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하고, 바로 그러한 일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순교자가 많이 나고 또 신자가 많이 난 지역이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의 온상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124위 가운데 상당수, 1/3 이상이 바로 이곳 출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제 오늘만 얘기한 게 결코 아닙니다. 이미 한국 천주교의 역사가 나올 때마다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1984년과 1989년에 교황님이 오셨을 때는 이 내포지역, 대전교구에 한 발짝도 들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요하고 그때는 중요하지 않아서였을까. 그건 아니겠지요. 다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른 때와 다르게 오로지 대전교구만 방문을 하신다는 것도 바로 이 내포지역만 방문을 한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비추어 본다면, 그때 못 왔으니 두 배로 오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

서도,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교황 방문이 확정이 되고나서, 한국주재 교황청 대사관에서도 오고, 또 주관 교구청 부서에서도 와서 답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처음에 논의되었던 것은 뭐냐면,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의 불법체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대전이나 천안의 체육관이나 시설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참여하는 사람이나 주관하는 사람이나 편하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대화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다시 내포지역의 성지들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그런 얘기들 때문이었겠지만,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저는 다른 몇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미 1980년대와는 다르게 지금은 국제대회나 순례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러한 훌륭한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올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미 1980년대 이후부터 더 최근까지는 여러 교회라든가 당진시라든가, 충청도 지자체,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 최근에도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충남발전연구원의 역할도, 오늘 이런 자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포문화권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가치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초적인 역할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했고, 충청남도에서 끊임없이 구체화 사업으로 실현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합덕에서는 얼마 전에, 그것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천주교문화도시를 육성을 하자, 왜냐면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곳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러한 도움을 받아서 물론 나중에 일이 좀 바뀌긴 했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지역주민이나 지자체나, 연구원이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그러한 작업을 해왔고, 그러한 인프라 구축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어떤 때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80년대에는 한 발짝도 들이지 못했던 일들을 여기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그래서 대전교구장 주교님도 이쪽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쪽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그동안 그러한 역할들이 이미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내포 민중들의 커다란 힘이 녹아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점에서 오늘의 심포지엄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강현수(좌장 · 충남발전연구원장)

- 예, 김성태 신부님,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이 지금 공주에 있는데요, 공주에 우금치라고 해서 동학과 관련된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학과 천주교로 상징되는 서학이 조금 다른 맥락인 줄 알았는데, 오늘 김성태 신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연결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25년 전에 교황님이 오셨을 때는 내포지역을 방문을 안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오시는 교황님이 내포지역을 방문하게 된 계기가 그동안 충청남도나 이 지역 내포 천주교분들의 노력과 여러 가지 투자, 그리고 관심 덕분이라는 말씀도 제가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바로 옆에 역사문화연구원의 오석민 관장님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 오석민(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박물관 관장)

- 박물관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오면서 이런 학술대회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 토론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논쟁을 벌이자는 의미보다는 서로 머리를 맞대자, 아이디어를 제공하자는 맥락이 강한 것 같아서 그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개 책자가 지금 인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것을 마친 시점에서 이제 차분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대민기관을 하다보니까 수요층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교황님 방문을 하시는데 입장이 다 다릅니다. 연구자 다르고, 행정가 다르고, 지역 주민 다르고, 관광객 다르고. 연구자들이야 자료집성 이런 것 하고 싶겠죠. 논문 편찬하고 싶겠고. 그런데 관광객은 가이드북을 원합니다. 그래서 소개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에게는 또 뭐가 필요하면 솔피성지를 가는 데 그 주변의 관광지도 보고 싶어 해요. 이제는 그것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갑자기 닥쳤기 때문에 순례길 조성을 하는데, 지금 저기 세 분이 와 계신데,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 다 와 계십니다. 그거 하느라고 아마 흰 머리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만. 잠깐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자가 아니고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겐 뭐가요. 오히려 일화가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옛날에 한 번 자료를 뒤지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부리나케 한번 찾아봤습니다. 홍성표 선생님, 추사 김정희 선생이 천주교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세도정치 했던 김조순 아시죠? 그 큰 아들이 김유분인데 김유분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추사 선생님을 천주교로 입교시키려고 하다가 그 양반이 제주도로 유배를 당하는 바람에 입교를 못 했거든요. 저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게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일화 하는 그런 부분쪽을 했으면 좋겠구요. 물론 그 얘기를 딱 던지게 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제 전공분야로 치면 지역사 내지는 한국사인데, 그러면 조선시대 후기 사상사 부분에서 동향과 사학이라는 맥락에서, 조광 교수님하고 논쟁 붙고 싶습니다. 추사 선생

이 주력 전지세력인데 그쪽에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은 그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추사 선생님이. 하나의 학문으로. 잘 아시는 표현으로 쓰자면 서학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일반인들에게는 더 큰 부분이 오히려 툭 던져주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개인적인 연구분야를 조금 죽여 놓고, 이 다음에 뭔가를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도 도에서는 스토리북 발간한다고 하니까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던져보겠습니다. 각 성지에 지자체면 CI 비슷한 게 있잖아요. 뭘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용역을 발주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여사울 성지는 뭐, 이거 하면 여사울, 이거 하면 솔피, 정돈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비는 되고, 아직 미진하다고 당진 쪽 분들은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솔피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비슷한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CI형태여도 좋고,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그건 천주교에서도 고민해야 할 지점이고, 충청남도에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6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써먹었으면 좋겠거든요? 16페이지 보면, ‘신앙의 못자리’ 라는 표현이 있겠습니까? 그 아래에 있는 프랑스 원어 김정환 신부님이 그 부분을 굵은 글자로 하셨습니다. “la principale pépinière de cette chrétienté” 맞습니까, 발음 이? (웃음) 예, 아마 좀 틀릴 겁니다. 불어 한 지 하도 오래 되어가지고, 이거 그냥 갖다 붙였으면 좋겠거든요. 어디에, 여사울 성지에, 내포의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표지판 속에 그 부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쓸 만한 것들이. 이거는 상징적이다 하는 부분. 예를 들면, 35페이지 한번 볼까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한글로 쓰면 별 볼일 없습니다. 성찰기략. 그런데 그 한글 표기법 보십시오. 『성찰기략』(省察記略)이 되죠. 애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도 있으면서 다시 한 번 눈이 가게 만드는, 그것이 용역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이런 것이라도 찾아서 당장 아이টে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거꾸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주교회 쪽, 다음에 행정기관 쪽에다가, 그런 부분 쪽에서 그게 기본적으로 방문객들에게, 특히 천주교와 멀면 멀수록, 독실한 천주교 신자시라면 그게 없어도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멀면 멀수록 이런 것들이 간접적인 호기심을 자극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성태 신부님한테도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옛날엔 합덕성당에서 종을 치게 되면 농토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셨다고 하거든요. 재현을 하면 좋거든요. 이번 도보순례길을 할 때도, 이게 탁탁 와 닿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말을 흔히 쓰던가요? 그런 부분을 제안 하시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천주교회 쪽에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학술적인 부분 보다는 더 먼저 해야 할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조선 후기 오게 되면 신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아까 조광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학자들은 사학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미

깨졌습니다. 신분이. 노비 해방 이루어지고 상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천주교가 받아들여졌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학계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은데, 각 분야별로 자기들만의 리그만 합니다. 교회사도 한국사, 지역사 하는 분들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 쪽에서 지속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교류가 있고 상호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식의 맥락을 제안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강현수(좌장 · 충남발전연구원장)

- 예, 오석민 관장님, 감사합니다. 연구자의 입장, 천주교 신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또 일반 방문객, 관광객의 입장을 고려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라던가, 이 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을 발굴하자는 것을 강조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교황 방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유병덕 문화예술과장님의 말씀을 청해드리겠습니다.

■ 유병덕(충청남도 문화예술과 과장)

-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남도 문화예술과장 유병덕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해준 플로어의 여러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교황님의 충남 방문의 배경과 의미를 깊이 있게 전해주시는 내포교회사연구소의 김정환 신부님, 그리고 초기 천주교의 우리 지역의 선교와 그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해 풍부한 이해를 도와주신 고려대학교 조광 선생님, 충남도를 대표하여 정말 감사 인사 올립니다. 저는 토론을 통해서 그 종교사적인 부분, 내포지역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했고, 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래되어 전파되는 과정, 우리 지역에서 평등의 가치가 먼저 시작되는데 서학에서 시작되는 이런 내용도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하신 자료를 통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 감사 올립니다.

제 토론의 주제는 이 심포지엄의 주제에 맞게끔 조금 범위를 크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교황님의 방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행보를 보면, 단순한 신앙의 진리를 파수하거나 전파하는 성직자라기보다는 끊임없는 대중들의 치주와 환호를 이끌어 내면서 전 세계인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노련한 정치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지난 5월 24부터 26일까지 3일간 중동을 방문하신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CNN이나 우리 뉴스를 통해서도 봤는데, ‘통곡의 벽’에 손을 댄 채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는 모습이나, 팔레스타인의 공화국 수반인 암바스와 이스라엘 대통령인 시몬 페레스를 바티칸 평화기도모임에 초청하셔서 함께 평화를 기도하고, 평화를 상

징하는 올리브 나무를 심었다는 얘길 들으면서, 미국 존 페리 국무장관도 하지 못한, 중동의 평화를 위한 큰 역할을 하셨구나, 하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교황님이 한국을 방문하는 의미는 조금 전에 연구결과도 발표해주셨고, 알려진 것처럼 아시아 청년들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외에도 우리에게는 그동안 교황님께서 보여주신 뛰어난 행보, 그 모습이 한국 방문을 통해서 큰 모습으로 또 보여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특히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난 물질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가치를 보다 우위에 놓는 사회로 변화하는 시작의 변환점이 되지 않겠는가. 또한 한반도의 분단과, 작금의 일본의 우경화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평화와 진정한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또 어떠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번 교황님 천주교 교황 방한 준비위원회 집행위원이신 조규만 주교님의 말씀을 빌어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의 과거를 축하하고 우리의 현재를 위로하고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 오신다” 고. 즉, 이 땅의 젊은이들과 아시아 젊은이들을 만나고,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 평화와 화해를 전하며, 우리 교회의 순교자 124위를 시복하고자 먼 길을 오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규만 주교님이 우리의 과거를 축하하고 우리의 현재를 위로하고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 오신다는 말씀을 발판 삼아서 그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과거를 축하한다고 함은, 조금 전에 많은 연구결과에서 발표해주신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구체적인 순교자 124위에 대한 시복과 우리지역의 성지인 당진 솔뫼와 서산 해미를 방문하시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천주교 선조들이 순교를 통해 증거한 사랑과 평화와 공존의 정신에 대한 추념과 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150년 전 국가 폭력에 의해 박해를 받고 순교한 역사는 아프고 슬픈 역사만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별을 거부하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성스러운 역사임을 나타낸 것이죠. 따라서 이 성스러운 충남의 역사와 전통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현재를 위로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의 위로를. 세월호 사건이든, 위안부 할머니 문제든. 그래서 명동성당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기원하는 미사, 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대전에서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를 통해서 위로를 전하는 뜻을 밝힐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 평화와 화해를 전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이고, 최근 들어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평화에도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의미를 짚어봅니다.

또,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다” 라는 교황님 자신의 말씀처럼, 자본주의와 이기주의, 물질 등의 왜곡된 세계관, 그 한계가 낳은 전쟁의 상

처와 세월호 참사의 아픔 등, 이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 가진 것을 나누는 삶에 대한 강렬한 요청이 우리에게 깊은 반향을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또 의미를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축복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과 아시아 젊은이들을 만나기 위해 당진 솔피와 서산 해미에서 아시아·한국청년대회에 참석하시는 것이겠지요. 즉, 미래의 주인공인 아시아와 한국의 젊은이들과 만남을 통해 “자기의 안위를 지키느라 속으로 병든 교회보다는 길거리에 나가 있어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운 교회를 택하겠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교황 자신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앞길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황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이 시대에 대한 진정한 개혁과 진보의 열망이 우리 사회와 전 세계에 널리 전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의미를 짚어봅니다.

결론적으로 교황님의 충남지역의 방문이 단지 하나의 이벤트, 형식적인 잔치가 아니라, 교황청 대변인 롬바르디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황님의 방문이 평화와 화해를 위한 봉사자로서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거룩하게 이룩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큰 의미를 저희는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희가 지난밤에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과 충남 지역 방문의 의미는 내포교회사연구소의 김정환 신부님과 고려대학교 조광 교수님께서 천주교의 충청도 선교와 사회문화적 특성의 모든 것을 바탕에 두면서 충청남도가 나아갈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교황님의 방문을 계기로 지역에 순례객이나 방문객이 늘어나서 단순히 지역민들의 상업에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준다는 관점을 저희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여길 넘어서 지역의 발전된 삶의 공동체와, 세계인들이 와보고 싶어 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당연히 당진시와 서산시가 노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충남지역이 성지와 지역주민이 하나의 삶의 공동체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천주교의 역사문화자원이 지역의 내재화를 이루어나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모든 이들이 찾아와 명상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면서 희망을 얻어가는 곳, 또한 평화와 공존, 진정한 화해 정신을 배워갈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나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와 당진시, 서산시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황님의 방문을 계기로 우리 지역의 천주교 역사문화자원을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가꿔나가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공감의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천주교의 성지가 지역 주민들과 떨어진, 유리됨이 없이 지역과 마을 발전의 원동력이자 삶의 근간이 됨으로써 성지와 지역 주민이 상생하고 진정한 공동체로 회복되는 본보기

가 되었으면 합니다. 천주교를 믿는 이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 모두를 위해 휴식과 배움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천주교의 성지와 순례길에 대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저희가 시작할 것입니다. 또, 생생히 꿈틀대는 천주교의 역사문화자원이 종교인들에게는 구원과 순례길이 될 것이고, 비종교인들에게는 치유와 희망의 쉼터, 평화와 인권의 산 교육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과 관계 기관은 물론, 충남도민은 오는 8월에 오실 교황님의 방문을 환영하며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와 시군에서는 한 205억을 투자해서 오시는 내방객들의 주차문제, 급수문제, 화장실 문제, 이용 편의문제, 또 교황님께서 이동하시는 동선에 대해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정중하게 맞이할 수 있는 환영 분위기 조성 과 영접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서 정성을 다해서 교황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충남발전연구원의 강현수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정정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강현수(좌장 · 충남발전연구원장)

- 우리 충청남도 유병덕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훌륭하고 유능하신 과장님이 의미를 잘 정리해주시니. 제가 알기로는 유병덕 과장님이 천주교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해박한 교황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저도 천주교인이 아닙니다만, 최근에 굉장히 감동적인 동영상 하나 봤는데요. 교황님이 얼마전에 또 마피아를 파문하셨잖아요. 시칠리아를 방문하셔가지고. 그 굉장히 험악한 마피아들하고도 교황님이 몸소 방문하셔서 마피아를 파문하시고 가는 길에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 한 분이 있는 집에서 교황님이 가는 길목에 ‘교황님 한번 들려주세요’ 하고 플랜카드를 걸어 놓았는데, 교황님이 가시던 길에 그 자리에서 섰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거기에 있는 장애우를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키스해 주시고 함녀서서, 굉장히 바쁜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섰다가 가셨어요. 저도 그 동영상을 보고 정말 교황님이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훌륭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충남에 오셔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은총들을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유병덕 과장님이, 우리가 앞에서의 논의가 주로 역사성, 내포시대의 역사적인 의미들, 그래서 교황님이 왜 이 지역에 오시는가에 대한 과거적인 의미를 주로 얘기했는데, 우리 유병덕 과장님께서 는 현재적인 의미,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까지 또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물질주의를 비판하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한 의미들까지도 아주 잘 정리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당진시에서, 오늘 우리가 행사를 당진에서 하고 있는데요, 당진시에서 교황 방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무 준비를 해주시는 김영구 과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 김영구(당진시 문화관광과 과장)

- 안녕하세요. 당진시청 문화관광과과장 김영구입니다. 앞에서 도 유병덕 과장님이 하도 설명을 잘 해주셔서가지고 저는 준비가 미흡한데 부담이 많이 갑니다. (웃음) 우선, 교황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정한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시아청년대회가 저희 당진에서 4일 동안 6천명이 모여서 각종 행사를 펼칩니다. 따라서 교황님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 6천명이 저희 시를 방문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챙기는 것도 저희가 부담이 가고, 또 행사를 잘 치르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5일날 교황님이 오시면 한 5만 명 이상이 저희 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교통문제나 주차문제, 자원봉사 쪽에서 많이 일을 하겠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황님 오시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청년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 오시는 15일 행사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무사히, 안전하고 편하게 저희 시에서 행사를 치르고 갈 수 있도록 행정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와 별개로 계속 우리 솔피성지나 신리성지, 합덕성당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해왔습니다. 합덕성당의 경우에는 생가 복원도 하고 기념관도 건립하고 광장도 조성하고 주차장이나 편의시설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교황님이 우리 시를 방문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신리성지의 경우에는 기존 광장도 포장하고 주차장도 넓게 만들었습니다. 주교관도 개관하고, 우리 교황님이 이번에 오시면 신리성지 거쳐서 합덕성당, 솔피까지 오실 줄 알았는데, 솔피성지만 들리신다고 합니다. 시 입장에서 욕심은 세 군대를 다 들리셔야 국비도 많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당진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우리 시민들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더라구요. 경호실에서는 경호관계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노선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합덕성당에서는 그동안 사제관도 작년에 복원하고 특히 13.4km의 버구내 솔피길도 현재 사업비 들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한 60억 정도가 필요한데,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지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3개 성지에 대해 200억을 들여 현재 사업을 지난 6월까지 완료했고, 앞으로도 계속 성지 발전을 위해서 국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교황님이 오시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현재 저희가 68억 정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 관련해서, 신리성지 진입로 확포장이나 합덕성당 주차장 사업도 하고 있구요, 행정정비 사업으로 해서 도로포장이나 공가정비, 노후건물 도색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의 중요성 때문에 솔피성지에 한 6천명의 아시아 청년들이 오는데, 여름철 한참 더위 때문에 청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텐트를 치는데 한 3억 천만 원 정도가 듭

니다. 시비로 부담해서 에어텐트라고 청소년들과 교황님이 덥지 않도록 설치하는데, 오늘 그 작업을 하러 현지 확인을 하러 업자가 왔다고 아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하여간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황님이 오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교황님이 왔다 가시면, 순례객이 지금 연간 30만 명이 오시는데, 그 이상, 배 이상은 오시리라 예상해서 교황님이 오시고 나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피성지 뒤편의 논도 매입해서 프레스 광장을 조성하고 우강초등학교에서 합덕 터미널 구간, 2.6km 정도 되는데요, 거기를 교황거리로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확장도 하고 정비정돈해서 시를 찾는 순례객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황님이 오시면 행사장에서 하시는 모든 행사 내용을 저희가 흔적으로 남겨서 동상도 만들고 팻 프린팅도 하고 계획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황님이 다녀가시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특히 교황님이 오시게 되면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면서 당진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요, 교황님이 오시면 세계적으로 방송을 타기 때문에 당진이 세계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진이 어디 있는지 모를 텐데, 교황님이 오심으로써 이러한 큰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천주교 쪽에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김정환 신부님께서 솔피성지 내에 내포교회사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혼자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천주교 연구 성과들을 천주교 종교사, 순교사에 국한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포괄적으로 연구가 진행돼서 내포 천주교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황님 방문 후에 지역사회의 발전 동력을 확산시키면서 다양한 학술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김정환 신부님께서 하시는 내포교회사 연구소를 더 확장해서 국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내포교회가 연구학회로 승격시켜서 연구 활동이 활발해지면 당진 천주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천주교사에 많은 성과가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천주교인들도 늘어날 테고 당진 같은 경우, 귀중한 재산인 성지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면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 강현수(좌장 · 충남발전연구원장)

- 예, 김영구 과장님, 감사합니다. 당장 8월 달에 행사 준비에도 바쁘시지만, 또 행사 이후에, 교황님이 가신 이후에도 이것을 어떻게 그 의미를 살리고 또 많은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인지 까지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서산의 김정겸 과장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겸(서산시 문화관광과 과장)

- 예, 반갑습니다. 서산시 문화관광과과장 김정겸입니다. 우선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정환 신부님, 그리고 조광 교수님,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서산시도 8월 17일날 교황님이 방문하심에 따라서 만반의 준비를 3개월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느꼈던, 그리고 교황님 방문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사항에 대해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충남 방문은 충남이 세계적 천주교 성지로, 또는 관광명소로 급부상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브랜드 구축이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남은 문화적 권역이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과 아까 주제발표하실 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충남 서부권에 해당하는 내포문화권으로, 이렇게 두 개의 큰 문화적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문화권의 맥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우리 충남의 하나의 큰 과제이고, 아주 긴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투자가 백제문화권 위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작 내포 지역 개발 사업은 전반적으로 탄력을 잃고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아까 김정환 신부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도 여러 말씀이 있으셨지만, 내포의 중요성, 내포의 천주교 문화라든지, 천주교 성지라든지, 이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내포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한 사항인데 적극 공감을 하면서, 역사적으로도 내포문화권은 천주교뿐만 아니라 불교 등 선진 문물을 바다 통해서 빨리 받아들인 문화적인 요충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내포를 중심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내포문화는 정말 가치 있는 우리 충남의 문화유산이며, 충남의 중심 문화로서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포문화를 살려내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황님 방문을 계기로 해서 충청남도 차원에서 내포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재조명 내지는 새로운 각도에서 그런 권력 개발 계획을 수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모든 내포의 자원들을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그야말로 충남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를 수 있도록, 내포문화 개발에 활력을 좀 불어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달, 6월 18일자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정부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관광 만족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에서 충남의 관광 인프라가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충남은 산과 바다, 그리고 많은 문화유적, 해수욕장 등 전국 어느 곳보다도 자원이 아주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원을 잘 활용하고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은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광소재가 많다 보니까 집중 투자가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집중 투자를 해서 특화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황님 방문을 계기로 내포 성지를 연계하는, 아까 성지 루트 말씀이 나

왔습니다만, 솔피에서 합덕성당을 거쳐 신리를 거쳐 덕산 한티고개를 넘어서 해미까지 오는 성지루트.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삶의 여정에서 죽음의 여정으로 가는 그 의미 부여를 한다면 이 성지루트 개발도 상당히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유적이 우리 내포지역에 상당히 많이 분포해있는데, 천주교 유적도 개별적으로 각 유적마다 중앙에서 국비를 많이 유치해서 개별적인 인프라 구축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내포지방에 분포되어있는 천주교 문화유산, 유적을 한 데 모아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방안,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충청남도 차원에서 검토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강현수(좌장 · 충남발전연구원장)

- 예, 서산시 김정겸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청남도에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이 있는데, 그동안 백제문화권에 뒤쳐져서 관심을 덜 받았던 내포문화권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을 시켜주셨습니다. 사실 서산에는 해미읍성 등 천주교 성지도 많지만 ‘백제의 미소’ 라고 하는 서산 마애불상도 있고, 여러 가지 불교문화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문화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도 했습니다만, 내포지역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개방성, 여러 가지 종교들의 수용성, 융합성, 또 독립운동가들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충절 등. 이런 것들이 내포에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겸 과장님이 내포지역의 여러 가지 잠재력 있는 문화적 자원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조금 되면 우리 박철희 박사님이 내포지역 정체성 연구 결과를 소개 좀 해주시지요. 자, 마지막 지정토론자입니다. 우리 중도일보의 박태구 차장님이 언론인의 시각으로 좋은 말씀 주시길 기대합니다.

■ 박태구(중도일보 차장)

- 예, 안녕하십니까. 중도일보 박태구 차장입니다.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역할은 오늘 심포지엄 행사를 잘 홍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일단은 제가 언론인 시각에서 이번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 의미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미적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꼽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것은 국가적인 행사일 뿐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황 방한 일정이 충남에서 열리는 천주교 행사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점은 지역 천주교와 충남 도민, 충남지역 지자체에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발표하셨던 내

포교회사 연구소장이신 김정환 신부님은 “교황의 충남 방문 배경과 의미”라는 주제발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의 결정적인 이유가 올해로 6번째 열리는 아시아청년대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아청년대회가 교황 방문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이 행사가 권위가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열리는 한국청년대회 행사의 파급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특히 교황 방문의 결정적인 이유로 부각된 두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황이 참석하는 아시아청년대회는 전 세계에 생방송으로 방영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방송 카메라에 비치는 장소나 건물들이 전 세계인들의 눈에 그대로 비쳐질 것인데, 따라서 행사를 잘 치러야 할 텐데, 옥의 티가 발견되면 국가적인 망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사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확인 작업을 잘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잘 치른 후에는 교황 방문지를 관광지화시키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황 방문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후에는 교황이 다녀간 방문지를 어떤 방법으로 명소화 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천주교 순례길’이나 ‘교황 방문길’이라는 직접적이고 단순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1993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스페인과 프랑스의 인접지역에 순례길로 잘 알려진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지역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순례길과 교황 방문지를 어떻게 방문객들에게 잘 명소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작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여기에 더불어 요새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광지업을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교황 방문 행사와 관련해서 충남도에서는 행사 준비는 문화예술평에서 맡고 있고, 행사 개최 후에 관광명소화는 관광산업과에서 하는 몫입니다. 관광명소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행사 이후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충남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교황 방문 시기가, 7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십 며칠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도로 정비나 환경정비 부분에서는 눈에 띄게 개선된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구요. 이번 교황 방문 행사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국비지원하는 것만 봐도, 뒤에서 쳐져서 서포트 하는 역할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와 서산, 당진시가 책임감 있게 성공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역량 발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관계기관 사이에 내실 있는 회의와 작업을 통해서 빈틈없는 성공적인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행사와 관련해서 국비나 여러 가지 예산 확보는 제대로 좀 되어 있는지, 충남도와 서산시, 당진시 관계자분에게 여쭙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 강현수(좌장 · 충남발전연구원장)

- 예, 박태구 차장님, 감사합니다. 다양한 스토리텔링 아이디어와 산티아고 순례길의 벤치마킹, 그리고 최신 스마트폰 활용까지 다양하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구요. 국비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질문까지 주셨습니다. 이미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을 준비 좀 해주시구요, 방청객에서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고생하시면서 참고 기다려주셨는데, 우리 좌석에 앉아계신 분들의 말씀을 대여섯 분 정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주실 말씀, 또 궁금한 점, 여쭙고 싶은 말씀, 또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인 교황 방문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주시고 싶은 고언들을 자유롭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나 편하신 대로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드시면 그쪽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략)

우리 박철희 부장님이 내포 정체성 연구에 대해 우리 연구원에서 어떻게 연구하고 계신지 잠깐만 설명 드리고,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듣고, 발표자 두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희(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질문과 토론 과정에서 내포사 지역 연구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말씀을 해드리라는 취지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 2013년 하반기 때 내포지역에 대한 정체성 연구를 저희가 전략과제로 수행을 했구요, 기존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현재와 미래를 볼 때 어떠한 정신과 가치를 계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체성 요소를 추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개방성, 다양성, 자립성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요소가 있구요. 그와 관련된 것이 곧 출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고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 강현수(좌장 · 충남발전연구원장)

- 예, 조금 시간에 쫓겨서, 저희가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 중에서 국비 확보를 얼마나 했냐는 질문이 있어서 그것은 어느 분이 대표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유과장님이 대표로 국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시지요.

■ 유병덕(충청남도 문화예술과 과장)

- 지금까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오늘 심포지엄의 주인공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교황 방문 준비를 위해서 하드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프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은 하드 부분,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즉 보이는 것, 솔피성지 옆에 성토를 하고, 합덕성당 앞에 주차장을 만들고, 신리성지 인근에 배수로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하드 부분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겠죠. 교황방문 준비를 위해서 소요액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대해 우리 양 시와 신부님들, 대전교구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보니깐 한 700억 가량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프란치스코 광장을 만든다, 또 기념관을 만든다, 동상을 만든다, 이런 것들. 제가 지금 볼 때는 교황 방문 준비와 관련해서 우선 직접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미뤄놨고, 한 205억 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205억 중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냐면 64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도비와 시군 예산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108억 정도 추가 요구를 냈습니다. 교황이 다녀가시면,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천주교 신자만의 순례길이 아니라는 거죠. 비신자도 함께 와서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을 명상을 통해서 치유를 하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천주교 신자만의 길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 아시아인들, 전 세계인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충청남도에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 시비를 중장기적으로 투자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수)

■ 강현수(좌장 · 충남발전연구원장)

- 예, 감사합니다. 국비를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웃음) 자, 우리 발표자분들의 마무리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정환 신부님, 한번 토론 내용과 전체적인 소회를 섞어서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 김정환 신부(내포교회사연구소장)

- 저는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충남도의 유병덕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해주신 것을 들으며 제가 굉장히 찢렸습니다. 오히려 저는 정신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은데, 오히려 유병덕 과장님이 가르쳐주시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다 말씀해주셔서. 저는 이번 주제가 당진에서 벌어지는 것이어서 여기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제가 그 부분을 미처 못 살피게 되어서 오히려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과제로는 확실히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해 더 알게 되었는데

데요, 제가 연구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보편적인 진리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종교인이건 아니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 강현수(좌장 · 충남발전연구원장)

- 예, 고맙습니다. 우리 조광 교수님, 한 번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 조광(고려대 한국사학과 명예교수)

- 예, 지금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적을하신 것처럼, 천주교 성지와 일반 지역과의 관계, 그리고 천주교사와 일반사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학에서 흔히 얘기를 하기를 ‘텍스트를 잘 알기 위해서는 컨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사가 컨텍스트이고 이 지역의 문화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심성이 컨텍스트라면, 거기에 천주교사는 성지는 하나의 텍스트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관계에서 이렇게 컨텍스트를 제외한 텍스트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 점을 조금 더 힘써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과 상관없이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충청도 지역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순교라고 할 때 그 ‘죽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그 죽음을 감행할 수 있었던 희망이라든지, 그들의 소망, 그들의 기쁨이 뭐였는가를 본다면 일반인들에게도 제대로 동의를 얻으면서 이 순교지를 힐링의 장소라든지, 아니면 자기 쇄신의 장소 등등으로, 그리고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내적 결심을 장소로도 변신을 시킬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강현수(좌장 · 충남발전연구원장)

- 오늘 이 심포지엄의 가치를 우리 조광 교수님이 아주 잘 정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면 오늘 이 심포지엄의 전체 의미가 한 마디로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발표자, 토론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구요, 특히 남아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 진지하셨습니다. (웃음)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짓기가 아쉬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남아주시지는 않았습시다만, 남아 있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의미 있게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심포지엄의 의미를 이미 다 정리했습니다만, 제가 저희 연구원에서 한번 되새겨주는 의미에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교황 방문의 의미는 내포지역의 과거의 역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적 의미, 그리고 미래적 의미도 좀 되새겨야 되겠다는 말씀, 그리고 천주교인뿐만 아니라 모

든 국민, 그리고 전 세계인도 함께 하는 의미도 부여해야 한다는 가치, 그리고 성지를 넘어서 이 지역으로, 그리고 가톨릭 종교사를 넘어서 더 넓은 인문학적인, 그리고 사회학적인 배경까지 다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조광 교수님 말씀을 빌리자면, 천주교라는, 그리고 천주교 성지라는 이 지역의 텍스트를 우리 시대, 우리 역사의 컨텍스트 속에서 해석할 때만이 이 교황님 방문의 의미와 가치를 저희들이 되살릴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저희들이 내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열띤 토론과 배움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